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창원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주현  
전화 055-239-4302

보도자료  
2024. 2. 7.(수)

제목

국내 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 가담  
신용등급 조작 160억 원 작업대출 일당 적발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□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(부장검사 박철)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 중 하나인 A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상향시켜 고액대출을 실행한 일명 '작업대출' 사건을 수사한 결과, **오늘(2. 7.)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A은행 부지점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작업대출 일당 6명을 기소함**

- A은행 부지점장은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및 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, ① **대출명의자의 "신용등급 상향"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**하였고,
- ② **"담보물 평가액 상향"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 및 임야를 저가 매수한 다음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 작성 후 고가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 대출을 실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행방법을 동원함**
- 이로써 A은행 부지점장 및 작업대출 일당들은 총 65회에 걸쳐 **합계 1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**하였음

□ 또한, 대출 대가로 A은행 부지점장은 공인중개사로부터 3,400만 원,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수수료로 가장 하여 1억 7,0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확인함

□ 창원지검은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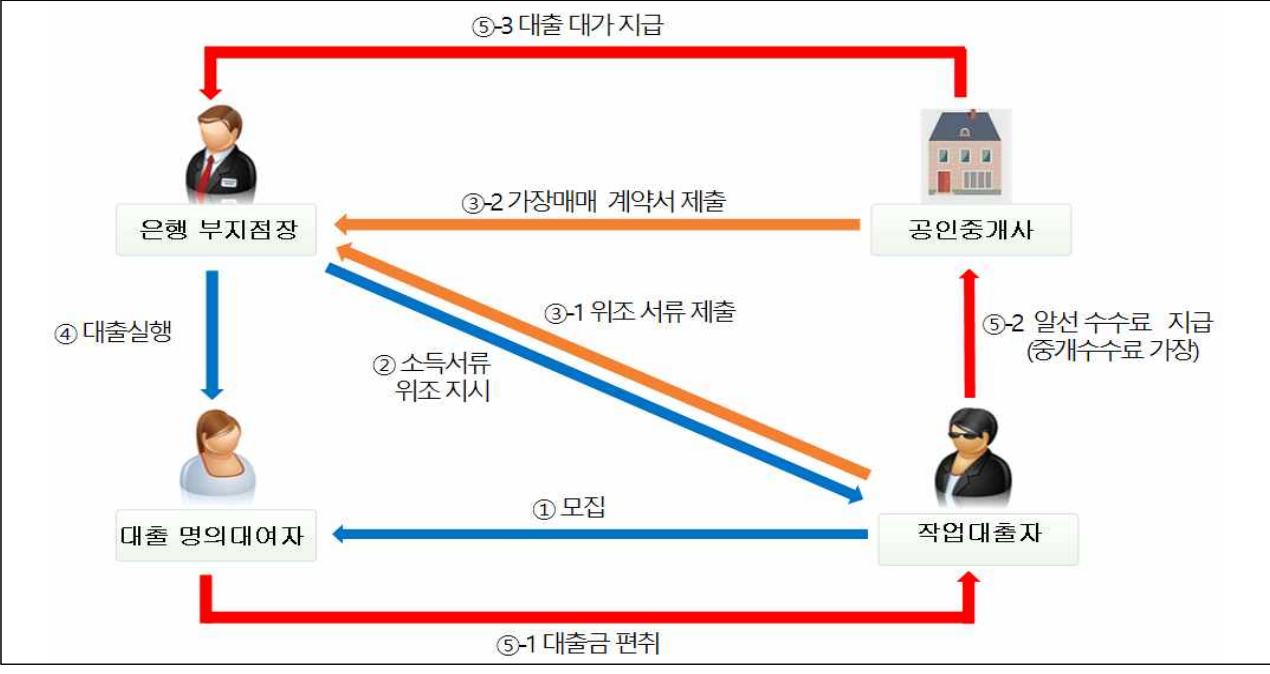
# 1 피고인

순번	대상자	주요 역할
1	ㄱ○○(51세)	前 A은행 ○○지점 부지점장 (서류 위조 지시, 대출실행)
2	ㄴ○○(55세)	공인중개사(가장매매계약서 작성)
3	ㄷ○○(48세)	작업대출자 (대출 명의대여자 물색 및 서류 위조)
4	ㄹ○○(55세)	
5	ㅁ○○(64세)	
6	ㅂ○○(63세)	

# 2 주요 공소사실 요지

- '21. 7.~'22. 12.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, 대출자의 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득서류 등을 위·변조하고, 매매대금을 부풀려 가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A은행으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60억 원 상당의 대출금 편취 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

① 대출 명의대여자 모집 → ② 은행 부지점장이 소득서류 등 위조 지시 → ③ 작업대출자 및 공인중개사가 서류 위조하고 가장매매계약서 작성·제출 → ④ 대출 실행 → ⑤ 작업대출자가 대출금 편취 / 은행 부지점장 및 공인중개사 대가 수수



- '21. 11.~'22. 12.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,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소득서류 또는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위·변조 [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,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]
  - '21. 9.~'22. 12.경 은행 부지점장인 ㄱㅇㅇ은 공인중개사인 ㄴㅇㅇ으로부터 작업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약 3,400만 원 수수 / ㄴㅇㅇ은 ㄱㅇㅇ에게 위 금원 교부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수·증재등)]
  - '21. 7.~'22. 12.경 공인중개사인 ㄴㅇㅇ은 ㄷㅇㅇ 등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약 1억 7,100만 원 수수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
- ※ ㄴㅇㅇ은 가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, 대출알선료를 수수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위장하였음

### 3 주요 수사 경과

- '23. 1.~2. 금감원 수사의뢰 및 A은행 고소장 제출(당청)
- '23. 6.~10. A은행 등 압수수색, 대출 명의대여자 등 관련자 40여명 조사
- '23. 11.~24. 1. 피고인들 조사, 계좌거래내역·카드결제내역 및 이메일 분석,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
- '24. 1. 26. 피고인 6명 검찰 인지
- '24. 1. 29. 피고인 ㄱㅇㅇ 및 ㄴㅇㅇ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/ 1. 31. 각 구속영장 발부
- '24. 2. 7. 피고인들 각 기소

## 4

### 수사 의의

- 국내 대형 시중은행 내부자가 가담한 작업대출 사기 범행 전모 규명
  - 다수의 대출 명의대여자를 소환조사하고, 다량의 대출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·대조하여 국내 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고등학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및 작업대출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·조직적으로 대출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가치를 허위로 상향시켜 약 160억 원 편취한 사실을 밝혀냄
  -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, 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, 계좌추적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,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금감원에서 수사의뢰한 작업대출자 이외 본건에 가담한 작업대출자 3명을 추가로 적발하고,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 전모를 규명함
- 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, 담보물 가액을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의 새로운 작업대출 범행 수법 확인
  - 은행 부지점장은 ① A은행의 '신용평가시스템'을 통해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작업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의 위·변조를 지시하고, 직접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조작하였음
  - 또한, ② 작업대출 일당은 소위 '깡통법인' 명의로 저가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2~5배 이상 부풀려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하였음

- 작업대출 일당은 i) 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, 은행 부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ii) 소득 증빙서류를 조작하고 iii)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진화하는 작업대출 방식의 새로운 수법을 적발하였음

● 은행 부지점장과 작업대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을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당대출 차단

-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여 부실을 은폐함으로써 약 1년에 걸친 160억 원 상당의 작업대출 범행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음

- 피고인들을 구속함으로써 은행 내부자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작업대출의 실상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부당대출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음

## 5 향후 계획

● 공판단계에서 피해 은행 측과 협의하여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

● 또한,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음 ☑